

‘배당’+‘수익’ 두 토끼... 글로벌펀드 인기몰이

국내펀드 투자할 곳 마땅치 않아
평균 수익 1% 안돼... 해외는 11%

직장생활 5년차 김씨는 연 초 증권사 직원의 추천을 받고 글로벌자산투자펀드에 가입했다. 안정적인 수익률과 꾸준한 배당이 매력적이어서다. 국내보다는 해외, 주식보다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안정적이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글로벌자산펀드를 선택한 건 신의 한 수”라고 말한다. 국내 증시가 크게 흔들리는 동안 14%가 넘는 수익을 올렸기 때문이다.

글로벌자산투자펀드가 인기몰이 중이다. 국내에서 투자할 상품이 마땅치 않아서다.

1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연 초 이후 이달 11일까지 국내에 설정된 75개 해외자산배분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11.10%로 집계됐다. 해당기간 국내자산배분 펀드 수익률(0.83%)은 물론 국내주식형펀드 수

〈연 초 이후 수익률 상위 해외자산배분 펀드〉

펀드명	운용사	설정일	순자산	연초이후
한화글로벌리얼에셋혼합자산자(혼합-재간접)C-C-f	한화자산운용	2017-12-29	426	14.48
블랙록다이나믹하이인컴(주훈-재간접)(A)	블랙록자산운용	2018-06-01	223	14.06
삼성미국코어밸런스[자]H(주훈)cf	삼성자산운용	2013-10-02	1,253	13.82
ABL알리안츠월지급인컴엔그로스[자](주훈-재간접)(H)A	에이비엘글로벌자산운용	2013-09-24	198	13.28
DB글로벌자산관리솔루션[자](H)(주훈-재간접)C-A	DB자산운용	2016-12-08	163	13.19

*설정액 50억 이상 펀드, 7월 12일 기준.

(단위: 억원, %)
/자료=펀드평가사 펀드스케이

물(0.12%)을 크게 앞섰다.

◆ ‘수익+배당’ 글로벌자산배분 펀드

해외자산배분 펀드는 ‘목ihil수록 수익을 내는’ 상품이다.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지만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률은 높아진다. 최근 1년 수익률은 2.85%, 3년 수익률은 23.11%다. 5년을 투자했다면 28.88%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국내자산배분 펀드의 3년 수익률은 1.15%, 5년은 2.73%다.

꾸준한 배당 역시 매력적이다. 펀드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세후 4~5% 배당률을 약속한다. 높은 배당을

주는 주식 또는 리츠(REITs·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뮤추얼펀드)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과 같이 금융시장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울 때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미·중 무역분쟁에 따라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광영 신영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경제 방향을 읽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럴 때 적절한 자산배분을 통한 포트폴리오 구축으로 안정적인 수익추구가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 한화자산운용 펀드 수익률 호조

연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펀드는 한화자산운용의 ‘한화글로벌리얼에셋펀드’다. 해당 펀드는 부동산, 도로, 유틸리티, 에너지 기업 등 비교적 안정적이고 높은 배당을 주는 선진국 기업에 주로 투자한다. 상황에 따라 우선주와 채권도 투자 대상이다. 저평가 된 자산군·국가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통해 알파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약 5%의 배당률은 주식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때 안전판을 제공한다.

상반기 기준 누적 성과를 살펴보면 1

개월 1.4%, 6개월 13.9%, 1년 8.8%를 기록했다. 해당 기간 코스피는 4.0%, 5.4%, -7.7%, 모건스탠리캐피탈지수(MSCI)월드인덱스는 4.1%, 22.2%, 5.2%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꾸준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펀드의 1년 변동성은 4.7%로 코스피(14.2%), MSCI 월드인덱스(12.3%) 대비 현저히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펀드의 위험조정수익률은 높은 수준이다.

글로벌 연기금이 선정한 ‘대체자산 100대 운용사’인 누빈자산운용(Nuveen Assetmanagement)의 자문을 받아 운용하기 때문에 해외 투자 트렌드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췄다.

다음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펀드는 블랙록자산운용의 ‘블랙록다이나믹하이인컴’이다. 연 초 이후 14.06% 수익을 내고 있다. 이어 삼성자산운용의 ‘삼성미국코어밸런스’가 13.82% 수익을 기록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은행 해외점포 수익 짹짹... 1.1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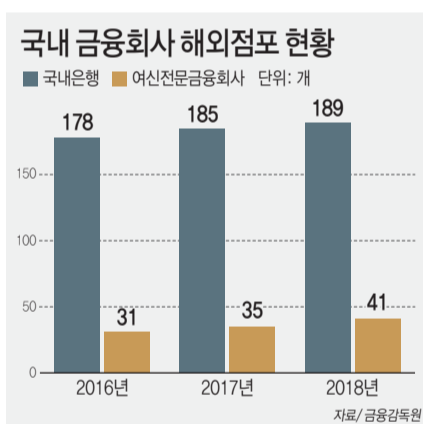
시장 내 잠재리스크 예의주시해야
통상정책 불확실성, 위험 키울수도

시중은행 및 여신업권의 해외점포 수와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장 내 잠재리스크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은 39개국 내 189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는 15개국 내 41개의 해외점포를 운영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당기순이익은 은행과 여전사가 각각 983백만 달러(약 1조1628억원), 1053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대비 22.2%, 10.6%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가 진출한 해외지역의 영업환경과 규제 등 잠재적인 불안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5위권의 수출국이기 때문에 글로벌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은 현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다른 국가보다 더욱 크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각에서는 최근 일본이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나라 사법부의 배상 판결에 따른 반발로 국내 기업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함에 따라 국내 기업의 통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통상정책의 불확

실성이 높아질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 및 연구개발(R&D) 지출이 감소해 국내 및 현지 금융시장에도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의 발행주식 내 외국인 보유지분 중에서도 일본 주주의 보유지분이 높은 은행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주주의 경우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선불리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계 자금의 이탈이 있었다면 엔·원환율이 급격히 올라갔을테지만, 현재까지 그런 변동성은 보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은행권에서는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에 따라 반도체 관련 업체들에게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해외 지점에 대해서도 현재 일본 금융당국의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관계로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민영 기자 hong93@

한은 “美, 경기확장 국면 당분간 지속... 잠재 수준 성장세”

121개월 확장국면... 1854년 이후 가장

미국 경제의 경기확장 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2007년 12월부터 2009년 6월 중 18개월의 경기 수축기를 거친 이후 올해 7월 현재 121개월간의 경기확장 국면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미국의 경기 순환 판정 개시 연도인 1854년 이후 가장 긴 기간이다.

이번 경기확장 국면은 확장 국면이 장기간 지속된 이전 세 차례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국내총생산(GDP)과 여타

경기판단 지표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고정부자의 성장기여율이 높은 점이 특징이다.

경기판단의 대표지표인 실질GDP 성장률(연평균)이 2% 초반 수준으로 이전 확장기의 3~4% 수준을 밑돌았다. 1983년에서 1990년까지 확장기에는 4.1%, 1992년에서 2000년까지 확장기는 3.8%, 2002년에서 2007년까지는 2.8%, 2010년부터 2018년까지는 2.3%였다.

한은은 “GDP에 대한 지출 부문별 기여율을 통해 비교해보면 개인소비와 설비 및 주택 투자가 급변 경기확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실질

소득, 산업생산, 소비지출 등 여타 지표도 이전 경기확장 국면에 비해 완만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미국 경제의 이 같은 경기확장 국면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예측기관들도 향후 고용 호조, 임금 상승에 따른 소득여건 개선에 힘입어 소비를 중심으로 잠재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4월 미국 GDP성장률을 2019년 2.3%, 2020년 1.9%로 예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5월 각각 2.8%, 2.3%로 전망했다.

/김희주 기자 hj89@



전국 휘발유 가격, 6주 연속 하락세

전국 휘발유 가격이 6주 연속 하락해 1당 1491.1원을 기록했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주간 단위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판매가격은 1당 1491.1원으로 전주 대비 4.6원 하락했다. 이는 유류세 인하폭 축소 직전인 5월 첫째주(1당 1460.0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사진은 14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車 침수사고 7~8월에 집중

삼성화재 부설 연구소 분석 결과

장마 등 국지성 호우 발생 영향

국지성 호우가 집중되는 여름철에 자동차 침수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여름철 침수차량 피해 특성과 예방대책’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4년 1월~2019년 5월) 삼성화재에 접수된 자동차 침수사고는 6844건(연평균 1363건)이었다.

국지성 호우로 인한 침수사고는 ▲2015년 183건 ▲2016년 202건 ▲2017년 1821건 ▲2018년 1333건 ▲2019년 30건 등으로 연도별 편차가 컸다. 특히 장마, 태풍 등 국지성 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7~8월에 4072건(59.5%)이 집중됐다.

국지성 호우로 인한 침수사고는 몇몇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일 강수량 100mm 이상의 비가 내렸던 2018년 8월 28일~29일에 고양시와 김포시에서 228건(피해액 32억2000만원)의 차량 침수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2018년 경기도 전체 차량침수사고(472건)의 48.3%, 피해액

의 56.2%에 달한다.

자동차 침수 피해액은 5년간 568억원으로 연평균 113억원에 달했다. 침수 차량 대당 피해액은 830만원으로 일반 교통사고 대당 차량 수리비(120만원)보다 6.9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차량이 침수되면 부분 수리로는 복구가 안 돼 폐차(전손)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운행 중 차량 침수사고는 엔진 흡입구를 통한 빗물 유입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엔진 흡입구가 낮은 차량의 경우 동일한 높이의 침수 도로를 운행하더라도 엔진 흡입구로 물이 유입될 위험성이 커 침수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침수사고의 85.3%, 피해액의 92.3%를 승용차가 차지했다. 또 침수차 10대 중 2대가(19.2%) 외제차인 것으로 집계됐다. 외제차는 건당 피해액이 2068만원에 달해 국산차(540만원)의 3.8배 수준이었다.

차량 침수 예방을 위한 침수 위험차 강제 견인, 침수도로 통행제한 등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희주 기자